

이봉상 피화담의 문학성

조 선 옥*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이봉상 피화담의 문학성 |
| II. 이봉상 피화담의 형성 배경 | V. 맺음말: 서사문학적 의의와 관련하여 |
| III. 실록으로 본 이봉상 避禍 사건 | |

국문초록

이 글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람본 『樸素村話』에 실린 이봉상 피화담을 검토하여, 본 작품이 가진 史話로서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史話란 ‘역사적 사실’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그 사실을 설명적 요소와 구체적 형상 등으로 드러냄으로써 미적 긴장과 정서적 감응을 낳아, 결과적으로 문학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역사성과 문학성을 함께 가진다. 본 작품은 辛丑·壬寅 士禍 당시 이봉상 피화 사건을 다룬 자료들 중에서 사실을 기록하면서 문학적 형상화에 가장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史話가 갖는 역사성과 문학성을 함께 고찰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 충청고등학교 교사

이봉상 피화담은 당시의 다양한 전승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어느 자료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치적 소신 때문에 겪게 된 기구한 삶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동안 노론가 중심으로만 일종의 담론으로 형성되어 오던 것이 비로소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므로 史料的 가치도 크다. 이 작품은 서사 편폭의 확대와 사건의 플롯화, 주변 인물의 활약과 서사 세계의 확대,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과 장면의 축조 등의 문학적 형상화 하였다. 그 결과 士禍 속에서 고난을 겪은 인물의 삶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사건에 대한 당대의 문화적 배경까지 담기게 되었다. 이로써 史話가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적 진실을 충실히 드러내고자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작가의 의도적 재구성을 통해 허구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진 한 전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봉상 피화담은 史話의 형식을 취하여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의 긴장 속에서 당대인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는데, 경험적 현실을 그려내면서도 허구적 현실에 더욱 가까워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적극적인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秀作으로서 史話史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樸素村話, 이봉상 피화담, 辛壬士禍, 史話, 문학적, 허구적 현실, 경험적 현실

I. 머리말

『樸素村話』¹⁾는 18세기에 지어진 잡록적 성격이 강한 야담집이다.²⁾ 여

1) 『樸素村話』는 良靖公 李箕翊의 증손인 李東允에 의해 그가 70세 되던 무렵인 1789년에서 1795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담집이다(정준식, 『樸素村話』

기에는 야담 작품뿐만 아니라 전설, 奇談, 일화, 사화, 의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의 기록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史話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사화란 ‘역사적 사실’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그 사실을 설명적 요소와 구체적 형상 등으로 드러냄으로써 미적 긴장과 정서적 감응을 낳아, 결과적으로 문학적성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역사성과 문학적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³⁾

본 연구는 『樸素村話』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史話 가운데, 李鳳祥의 避禍談⁴⁾을 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당시의 국가적 쟁점이 되었던 신축·임인 사화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상당한 분량을 갖추면서 문학적 형상화에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史話가 갖는 역사성과 문학적성을 함께 고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봉상의 避禍 사실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자료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알려져 있다.⁵⁾ 첫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正史 기록,

- 의 저작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집, 어문연구학회, 2002). 본 연구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樸素村話』 가람본(3권 총 613화)을 주 텍스트로 하였다.
- 2) 지금까지 『樸素村話』에 대한 연구는 간단한 서지 정보가 발표된 이후 창작 연대를 추정하고 작가가 밝혀지면서 작가론, 갈래론, 서사적 구성방식, 생성 과정, 특정 유형담 및 개별 작품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 3) 史話의 유형상 특징이나 갈래에 대해서는 정명기, 이강옥, 이래중, 김화경, 신동훈 등에 의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부각시킨 이야기를 통틀어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라는 의미의 史話로 규정하여 논의한다. 사화는 대체로 역사적 근거를 중시하는 이야기의 성격상 문헌을 접하거나 역사적 식견을 쌓을 만한 입장에 있는 상층 집단이 주된 전승자이므로 그들이 텍스트의 성격을 좌우한다(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174면 참조). 그러므로 작중 인물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이나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궁극적 지향은 결국 기록자의 사회적 성향 및 이야기의 내적 의미 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 4) 『樸素村話』 소재 이봉상의 피화담은 1-135화와 136화를 말하는데, 이후 ‘이봉상 피화담’으로 지칭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5) 서경희, 김씨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참조.

둘째 이봉상의 조모인 김씨 부인이 작성한 두 편의 상言과 그의 아들 이영유가 쓴 ‘先妣行狀’ 등 사건 당사자 집안의 기록, 셋째 이동윤이 누나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한 『樸素村話』의 1권 135화 및 136화와 이동윤의 문집인 『敏齋遺稿』, 李緯의 『삼관기』 한글 필사본 뒤에 붙은 ‘니녕부스부인 김시 상언’ 등 주변인들의 기록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사실적 기록에 치중하거나 사건의 편린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독립된 서사적 구성과 문학성을 두루 갖추지 못한 것들이다. 그러나 『樸素村話』의 것은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내용이 자세하고 서사적 짜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문학적 형상화가 된 작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樸素村話』의 이봉상 피화담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기록하는 데 치중하는 ‘史話’가 ‘경험적 서사체’로서의 역사성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 ‘허구적 서사체’인 문학과 어떻게 서로 교섭하는지를 밝혀, 이봉상 피화담이 갖는 ‘史話’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 차원의 이야기와 흥미 중심의 이야기 사이에 놓이는”⁶⁾ 史話의 양식적 특성을 설명함은 물론,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기록한 ‘史話’가 어떻게 문학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소 당쟁이 격심했던 18·9세기에 노론 사대부 사이에서 일종의 담론으로 존재하였던 이봉상 피화담이 ‘史話’의 성격을 띤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다른 한편으로 ‘문학적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간 이유를 짐작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 이봉상 피화담의 형성 배경

이봉상 피화담의 주인공 이봉상이 살았던 18세기는 당쟁이 격심했던

6) 신동훈, 앞의 책 132면.

시기이다.⁷⁾ 그 중에서도 신임사회는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에 일어난 士禍로서 士類들의 대규모 참변이 일어났던 정치적 대사건이었다. 정유년에 이이명이 숙종을 독대한 이후, 노론이 경종으로부터 연잉군 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의 명을 받아낸 일로 김일경이 노론 4대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신축년에 士禍가 일어났다. 그 이듬해 임인년에는 목호룡의 ‘三手逆獄’으로 인해 노론 4대신이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해에 걸쳐 일어난 士禍로 노론이 참변을 당하고 실각을 했지만, 갑진년(1724)에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정국의 대 전환이 일어났다. 김일경과 목호룡이 처벌되고, 을사년(1725)에 노론 4대신의 관작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다시 정미년(1727)에 당파심이 강한 신하들이 파면되면서 換局이 일어났다. 영조의 신유대훈(1741)을 기점으로 하여 壬寅獄을 誣獄으로 규정하고 노론 4대신을 비롯하여 신임년의 被禍者들을 伸冤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討逆論이 일어났다.⁸⁾ 그 과정에서 노론 4대신 중 이건명과 조태채는 기유년(1729)에 伸冤이 되었으나 김창집과 이이명은 경신년(1740)에 이르러서야 신원되었다. 李東允은 노론계의 학맥 속에서 수학하였기에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거나 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樸素村話』에 신임사회 관련 사건을 여러 편의 史話로 기록하였다.⁹⁾

이봉상 피화담 역시 이런 배경에서 탄생된 작품이다. 雪川 李鳳祥은

7) 숙종, 경종, 영조에 이르기까지 심의겸과 김효원에게서 비롯된 동서 봉당이 대명·대청 외교 및 학문적 견해 차이로 인해 노소와 남북으로 나뉘고, 경종과 영조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영조를 擇君하는 과정에서 충역의리시비로 인해 생긴 몇 차례의 옥사와 환국, 무고사건, 이인좌의 난 등이 일어난 시기이다. 송시열과 윤증에게서 시작된 전대의 사문시비와, 대의논쟁에서 비롯된 학문적·철학적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충역시비로 전환되면서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임사회로 나타났다.

8) 이은순, 『조선후기당쟁사연구』, 일조각, 1996년 참조.

9) 조선옥, 『『樸素村話』 소개 당쟁이야기의 진술 방식과 지향의식』(『한국민족문화』 23집,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에서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조부 이이명과 부친 이기지가 신입사화 때 처형되자 가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신도 화를 입게 되었다. 범망을 피하여 숨어 살다가 을사년에 죄가 풀려나 恭陵寢郎을 제수 받지만, 정미년에 다시 죄인의 몸이 되어 여러 차례 유배를 갔다. 그 후 경신년에 이르러 이이명이 신원되고서야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다. 이봉상 피화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규상의 『并世才彦錄』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持平 李鳳祥은 자가 儀韶요, 진사 李器之의 아들이며 충문공 李頤命의 손자이다. 충문공이 신임옥사에 걸려 가장 혹독하게 당하였는데, 이봉상은 收司를 당하여 망명했다가 영조 조에 비로소 나오게 되었다.¹⁰⁾

이봉상은 1722년 임인사화 때 화를 면하고 1725년 遺逸로 천거되어 다시 등용된 인물이다. 노론의 핵심 인물인 이이명의 손자였던 만큼 그의 避禍는 그의 생애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당대인들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史話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 및 그에 얽힌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사실을 보고적으로 기술하는 데 치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봉상의 경우처럼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거나 극적이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널리 회자되는 경우에는 전승 과정에서 특정 장면의 확대나 부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더러는 사실에서 멀어져 진실이 왜곡되거나 원래의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흥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전승되기도 한다. 이봉상 피화담은 역사적 사건에 얽힌 인물의 기구한 삶을 보고적으로 기술하면서도 군데군데 중요한 대목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을 축조해내고 있으므로, ‘史話’의 기록성과 문학성을 함께 살피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10) 이규상, 『18세기 조선인물지 并世才彦錄』, <유림록>, 창작과 비평사, 1997, 23면.

이봉상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봉상이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비슷하므로 영웅소설의 형성에 바탕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논문, 이봉상 사건에 대해 올린 김씨 부인의 상언을 국문 장편소설 창작의 저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고 본 견해, 이봉상 내외의 고난 극복의 삶이 고전소설의 주인공과 흡사하다고 본 견해, 당쟁 이야기의 하나로 보고 이야기의 진술방식과 지향의식을 연구한 것, 다양하게 전승되는 이봉상 관련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승 과정의 변이 양상과 의의를 다룬 연구 등이 그것이다.¹¹⁾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이봉상 피화담에 대한 작품론을 바탕으로 史話로서 갖는 역사성과 문학적성을 면밀하게 고찰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봉상의 피화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실록을 비롯한 정사 외에 이동윤의 『樸素村話』 및 『敏齋遺稿』, 李希齡이 쓰고 그 아들 漢宗이 증보한 야사집인 『藥坡漫錄』, 陶庵 李緯의 <삼관기> 등에 실려 전한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대체적으로 단편적인 사건만을 기록하거나 구체적인 형상화를 거치지 않고 대략적인 사건만을 전달하고 있다. 이 중 김씨 부인이 쓴 두 차례의 상언은 집안사람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전사되어 읽혔음을 알 수 있는데¹²⁾, 이봉상의 도주 경위를 살필 수 있어 『樸素村話』의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간략하여 서사적인 문학적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봉상의 避禍에 관한 사실이 역사적 사

11) 이봉상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치균,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 17호, 문헌과 해석사, 2001, 가을;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조선옥, 「『樸素村話』 소재 당쟁이야기의 진술방식과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23,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서경희, 「‘이봉상 사건’의 전승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회, 2006.

12) 서경희, 앞의 논문, 316면.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처한 특수성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세한 전말이 실리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樸素村話』에서는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기록함은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장면화와 서사적 기법으로 표현하고 극적 상황에 처한 인물의 삶까지 재창조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 기록에 충실한 실록의 관련 기록과 의도적 재구성으로 문학성이 강조된 『樸素村話』의 것을 비교해 보면 이봉상 피화담의 역사성과 문학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실록으로 본 이봉상 避禍 사건

이봉상 피화담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들 중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히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실록을 먼저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두 개의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이봉상의 從祖인 청풍부사 이익명이 그의 종손인 이봉상이 피란한 실정을 고하고 자현하게 한 것(영조 1년 4월 25일 첫번째 기사)과 영부사 이이명의 처 김씨 부인이 손자인 이봉상의 증직에 감사하면서 席藁俟誅를 上言한 데 대해 비답을 내린 것 및 이후 이봉상이 임금을 알현한 데 대한 것(영조 1년 5월 9일 2번째 기사)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당초에 李器之를 收拏하라는 명이 내렸을 때 이봉상은 당시 나이가 16세였고, 집은 扶餘 白馬江 가에 있었다. 李頤命의 누이는 郡守 金道濟의 처인데, 명이 내려진 것을 듣고 밤에 家僮으로 하여금 달려가서 이봉상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그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이봉상의 祖母 金氏가 급히 이봉상의 乳母를 불러 귀에 대고 말을 하였다. 유모에게 아들이 있어 나이와 모습이 이봉상과 비슷하였다. 드디어 그가 이봉상의 衰服을 입고 즉시 그 밤으로 강가에 나아가 靛靛을 모래밭에 벗어 놓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이웃 마을에는 ‘이봉상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자자하게 퍼졌다. 하늘이 밝을 무렵에 使者가 이르러 시체를 강에서 건져 살펴보고는 돌아가 이봉상이 이미 죽었다고 상주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이봉상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걸어가 茂朱의 赤裳山城에 도착하였다. 재물도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 李晩得이라는 사람이 이봉상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하였으나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한동안 살고 나서 이봉상이 사실대로 고하자 이만득은 더욱 불쌍히 여겨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이 때에 이르러 이봉상이 비로소 죽지 않았다고 자수하니, 임금의 대단히 기이하게 여기고는 臨朝하여 여러 차례 嗟歎하였다.¹³⁾

(나) 亡夫는 단지 아들 하나 李器之를 두었습니다. 이기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장님이어서 폐인이 되었고 유독 이봉상이 後嗣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禍亂이 일어날 때에는 나이 겨우 16세였는데, 李器之를 藁葬한 뒤 王府에서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는 노예를 만들도록 했다는 소식이 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떻게 일신에 닥칠 嚴誅를 두려워하여 두 세대에 걸쳐 하나 남은 핏줄을 보존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子婦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이미 이곳을 떠났으니 이로 인하여 목숨을 도모할 수 있다면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趙氏의 거짓 孤兒가 된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는데, 마침 家僮 가운데 나이와 용모가 이봉상과 비슷한 아이가 있었으므로 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그 가동이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사양하지 않고 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이봉상을 도망하여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동의 시체를 斂하고 棺에 넣어 官府의 剖檢을 거친 다음 무덤을 쓰고 신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봉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한번 떠나간 뒤에 소식이 없었는데, 금년 2월에야 비로소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찾아서 자수하게 하려 하였었습니다.¹⁴⁾

(다) 임금이 이봉상을 進修堂에서 引見하고 諭示하기를,

13) 영조 5권, 1년 4월 25일 1번째 기사.

14) 영조 6권, 1년 5월 9일 2번째 기사.

“領府事의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번 鋒刃의 禍가 있고 나서 絶족이 없으리라고 여겼는데, 지난번 그대 종조의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대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실로 근래에 드문 일로, 그 顛末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인견한 것이다.” 하니, 이봉상이 당초 化란이 있었던 가운데 달아나 자취를 감추었던 정상을 모두 진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자년에 그대의 祖父를 만나보았었는데 6년 뒤에 또 그대를 만나보니, 마치 그대의 조부를 만난 것 같다.”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제 金氏의 上을 보니, 나도 모르게 悲痛한 마음이 든다. 家僮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대신 바친 일은 실로 前古에도 드문 일이다. 이에 中官을 보내어 待命하지 말라는 일로 傳諭하고 주인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바친 가동에 대해서도 전례를 상고하여 褒賞하도록 하라.” 하였다.

(가)는 이이명의 아우 이익명이 올린 상소와 이봉상에 관한 당시의 소문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나)는 임금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봉상에게 벼슬을 내리자 이봉상의 조모인 김씨가 임금에게 상언한 내용이며, (다)는 임금이 이봉상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家僮을 포상하라고 명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화를 당할 때 이봉상은 16세로 백마강가에 살았다.
- ② 한밤중에 이이명의 누이가 소식을 알려주었다.
- ③ 조모 김씨는 모습이 비슷한 유모의 아들을 권유하여 이봉상의 衰服을 입히고 백마강에 뛰어들게 하였다.
- ④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무주 적상산성에 도착하였다.
- ⑤ 재물이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 이만득이 이봉상을 받아들여 후하게 대해 주었다.
- ⑥ 이 때에 이봉상이 자수하였다.
- ⑦ 임금이 그간의 사실을 듣고서 기이하게 여기고, 가동을 포상하라고 하였다.

이이명과 이기지가 명을 받아 죽은 뒤 유일한 嗣孫인 이봉상마저 화를 당하게 되자, 家僮과 옷을 바꿔 입혀 그를 피신시켰으므로 세상에서는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것을 이이명이 복작된 이후에야 임금께 사실을 고하고 죄를 청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가)-(다)를 보면 유모의 아들을 속여서 대신 죽게 하고 이봉상을 도망가게 한 과정은 비교적 자세한 반면, 이후의 피란 과정은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조정에서는 물론 김씨나 이익명조차도 이봉상이 피신한 이후로는 그의 존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봉상의 피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해서는 (가)와 (다)의 내용을 참고할 만한데, 특히 (가)의 후반부는 이봉상 피화에 관한 당시 세인들의 소문을 기록한 것으로, 사건 당시 이봉상의 나이, 거주지, 명을 전해 받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 피난의 경로와 은둔지, 피신을 도와준 이만득에 대한 정보 등 (다)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세하다.

1725년 을사년에 이이명이 복작되자, 이익명과 김씨 부인은 피신시켰던 嗣孫을 세상에 알리고 임금의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여 임금에게 상언하였다. 그런데 이익명은 자신은 종손이 살아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¹⁵⁾ 김씨 부인은 家僮과 바꿔치기하여 이봉상을 피신시키고 관의 再檢屍를 따돌린 일은 간략하게 진술하고 오히려 왕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곡진하게 호소하였다. 이익명의 경우는 물론 유배지에 갇힌 처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重法을 범한 죄를 숨겨야만 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즉 피란 후의 정황이 실록에서 이처럼 간략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는 실록의 양식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금의 명을 어기고 숨어 다녀야만 했던 인물의 처지로 인해 피란의 자취를 세상에 숨기고 정황을 자세하게 알리지 못하였던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15) 영조 1년 4월 25일 기사 참조.

IV. 이봉상 피화담의 문학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록에서는 이봉상의 피란의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과 소문, 이익명의 상소, 김씨 부인의 상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간략한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산만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樸素村話』의 것은 다른 기록에 비해 사건이 무척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단락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이이명이 세제건저로 임인년의 화를 입자 그 아들 일암공 이기지도 죽었다.
- 2) 손자 설천공 이봉상이 이 때 16세였는데 죄에 걸렸으나 창두 수현이 자청하여 몰래 신고 집안일을 돌보던 영태가 살던 태백산 아래를 향해 갔다.
- 3) 이 날 창두 한 사람이 설천공의 옷을 입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염을 할 때 읍재가 재검까지 하였다.
- 4) 수현 일행은 태백으로 가던 길에 일찍이 면식이 있던 무주의 읍중 장교 이만득을 만나, 방향을 바꾸어 무주봉 만득의 집으로 가 숨었다.
- 5) 그 집은 을해년 대기근 때 이이명이 수현을 시켜 만득과 더불어 개간하여 난을 피할 것을 주선하던 곳에 있었다.
- 6) 설천공이 변발을 하고 숨어 지내니 이웃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 7) 만득이 이이명과 이기지의 소상과 대상 때 몰래 설천공을 이끌고 밤에 산으로 가서 통곡하고 돌아왔다.
- 8) 만득은 수현을 만나 매년 한 번씩 본댁에 서안을 보내어 서로의 존몰을 알게 하였다.
- 9) 이 때 흉당은 그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여 현상금을 걸어 찾았으나 만득이 군교가 되어 잡히지 않게 임시변통으로 꾸려 나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어려워졌다.
- 10) 설천공이 산촌의 집을 나와 도피하다가 장맛비를 만났는데 산사태가 나서 도주하기 힘들고 온 마을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그가

거처하는 곳만은 무사하였다.

- 11) 흥당이 반드시 잡으려고 外祖 정각선을 잡아가고, 무당에게 점을 쳐 잡으려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다.
- 12) 영조 을사년에 이이명이 상소하니 濫批를 내리시어, 충문공 부인이 그 손자를 이끌고 席藁하니 임금의 위로하였다.
- 13) 설천공이 공릉침낭을 제수 받으니 임금이 인견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부자지간같이 하였다.
- 14) 이이명이 처음 남해에 유배 가서 후명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영태는 棺材를 싣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울릉도에 표박하여 몇 년을 고생하던 중, 이때에 지나가던 배를 만나 돌아왔다.
- 15) 정미년에 또 흥당들이 일을 꾸밀 때 이봉상은 망명하여 보전하였는데, 이이명의 사위인 김신겸이 그들이 죽은 줄 알고 관재를 가지고 가니 모두들 놀랐다
- 16) 경신년에 충문공이 신원되자 공도 풀려났다
- 17) 설천공이 무주에 있을 때 이만득이 <주자서절요> 일부를 얻어다 주니 3년 동안 읽어 문리가 환하였다
- 18) 부인 김씨는 충헌공의 손녀로, 베를 짜서 공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내조하였다.
- 19) 만득이 집안일을 끝까지 힘썼으므로, 그가 죽자 설천공은 글을 써 壙에 넣었다.
- 20) 만득의 아들 또한 일찌기 왕래하여 서로 잊지 않았다고 한다.
- 21) 설천공은 내 누이 정씨부에게 외조모의 조카가 되는 까닭에, 일찍이 도망 다니던 전말을 누이에게서 듣고 지금 곁에서 들은 것을 기록함이 이와 같다.

작품의 길이도 상당하고 기록하고 있는 세부 사건도 다양하다. 서술의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이봉상의 피란 과정 : 1)-4)
- (B) 이이명의 무주 일화 : 5)
- (C) 이봉상의 무주 피란 생활 : 6)-11)
- (D) 이봉상의 자수와 임금 알현 : 12)-13)

- (E) 이이명이 후명 받을 때 영태의 일화 : 14)
- (F) 이봉상의 2차 피란 : 15)-16)
- (G) 이봉상의 무주 생활 : 17)-18)
- (H) 만득 부자의 충성에 관한 에피소드 : 19)-20)
- (I) 기록의 경위 : 21)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양식보다도 史話의 방식을 택해 서사적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의 사실을 (A)와 (D)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실록인 (가)-(다)보다도 훨씬 길고 인물과 사건이 복잡해짐은 물론 의도적인 서사적 구성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사에 기록될 수 없었던 내용들까지 기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므로, 서술의 시간적 배경이 길어져 신임사화 당시의 이봉상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인물들의 행적까지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풍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이전의 관련 사건과 정미환국 이후의 사건까지도 활용하여 인과관계로 엮어 더욱 구성이 치밀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실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주변 인물들의 행적까지도 기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화와 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장면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사 편폭의 확대와 사건의 플롯화

이동운은 史話는 正史와 달리 자유로운 형식으로서, 형식이나 분량에 구애받지 않음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재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단일한 사건, 주요한 인물의 행동에

만 국한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자신이 취재한 다양한 내용들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正史 기록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지게 되었다.

이봉상 피화담의 서사 단락을 보면 (A)와 (D), 그리고 (C)의 일부는 이봉상의 避禍의 전말, 이익명의 상소, 김씨 부인과 이봉상이 임금을 알현한 일 등 실록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으로 세상에 알려진 내력이 너무나 간략하였으므로 자신이 다양한 경로로 취재한 내용을 더하여 더욱 구체화시키게 되면서 우선 분량이 무척 길어졌다. 그리고 조부와 부친의 소상과 대상 때 몰래 산에 가 통곡한 일과 세상의 눈을 피해 본댁과 서안을 주고받은 일, 이봉상을 잡기 위해서 반대당이 그의 외가에까지 압력을 가한 일 등에 해당하는 (C)는 실록에는 없는 것으로 새롭게 내용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물인 영태와 만득의 활약과 이봉상의 부인 김씨의 내조에 관한 (F)와 (G)도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이다.¹⁶⁾ 특히 만득은 실록에도 언급이 있는 인물이지만 이봉상이 벼슬을 받은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한 것을 덧붙여 인물의 충성스런 성격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E) 부분 즉 정미환국(1727)으로 인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망명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을 때의 에피소드와 이이명이 완전히 신원된 경신년(1740)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어 서술의 배경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처럼 기록의 양식이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내용 구성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등장인물을 다양화하고, 사건을 구체화하는 등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사건을 인과적으로 서술하여 플롯화 함으로써 문학성을 더욱 강

16) 이봉상의 아들 이영유가 쓴 모친의 行狀에서도 김창집의 손녀였던 어머니 김씨 부인은 남편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상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회고하고 있다(이영유, <先妣行狀>, 서경희 앞의 논문, 49면).

화하였다. 실록의 기록은 대체로 순차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군더더기 없이 기록한다. 하지만 이봉상 피화담은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하고 필연적인 장치를 결합하여 인과적인 서술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단락을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해 보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B)-(D)-(A)-(C),(F)-(E)-(G)-(H)

(B)와 (D)는 과거 사건에 해당하고 (A)-(E)는 현재 사건의 경과이며 (G)와 (H)는 후일담에 속한다. 정치적 혼란기를 살다 간 주인공의 기구한 삶의 곡절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기에서 관의 눈을 속이고 극적으로 도망에 성공한 것은 너무나 극적이었다. 이는 세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제일 앞부분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 부분은 구성상 의도적으로 삽입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임금이 이봉상을 불러 숨어 있던 곳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이냐고 묻자 이봉상은 “친분이 있던 집은 아니고 도망가다가 다다른 곳일 뿐입니다”라고 답하였다.¹⁷⁾ 그런데 여기서는 무주로 피신을 하여 만득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이이명이 을해년의 대기근 때 그곳에서 그와 함께 주선을 했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인과적으로 구성하였다. 을해년에 대 기근이 일어나자 충문공이 부모를 위하여 무주로 가 빈 땅과 버려진 집을 찾아 개간하여 난을 피하고자 수현을 태수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이 때 만득은 군교로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을 하였는데, 그 일로 만득은 충문공과 글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봉상 집안이 화를 당하게 되자 죄인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17) 上曰 所往處 非爾曾前親知之人乎 鳳祥曰 非所親之家 自爾奔竄 至于其處矣(『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5월 9일 기사).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봉상 피화담은 의도적으로 사건 발생의 순서를 바꾸어 서술하고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배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며 결말을 보여주는 방식의 의도적인 재배열은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아두어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2. 주변인물의 활약과 서사 세계의 확대

이봉상 피화담은 서사적 초점이 주인공의 避禍와 그 과정에서 겪은 고초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의 활약상에도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보조인물과 반동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그려냈다. 士禍를 당한 주인공의 被禍와 避亂의 과정에서 嗣孫을 보존하려는 집안의 치열한 몸부림과 함께 忠奴의 機智와 충성심 등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우선 이봉상의 부인 김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컸음을 드러내었다.

부인 김씨는 충헌공의 손녀이다. 공을 따라서 배 짜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공으로 하여금 학문에 전심할 수 있게 하였다.¹⁸⁾

영조대의 士禍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은 비단 이이명 집안의 일만이 아니었다. 『樸素村話』에는 화를 당해 죽음을 맞을 때의 이이명 부자의 의연함 및 살아남은 가족들의 눈물겨운 삶을 그려내거나, 嗣孫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여 대가 끊어져버린 김용택 집안의 안타까운 사연,¹⁹⁾ 정치적 고난을 겪은 인물의 자손들이 그 이후의 힘겨운 삶을 어떻게 이어 나

18) 夫人金氏忠獻公之孫女也 從公而勤織作而爲生 得使公全心所學焉(『樸素村話』1-135).

19) 『樸素村話』 1-137화와 138화. 이이명과 함께 화를 당했던 김용택은 홀로 남은 아들 대재가 산속에 피신해 숨어있었던 것을 가까운 친척이 잡아다 바쳐 마침내 대가 끊어져버렸다고 하여 이봉상 집안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가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기도 하였다.²⁰⁾ 이들 경우 못지않게 남편을 피신시키고 풍비박산이 된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어른을 모시고 살아간 이봉상 아내의 눈물겨운 내조도 비극적 삶의 형상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록에는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처리해버린 조력자들의 이름과 행적이 이봉상 피화담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실록에는 이봉상을 대신해서 죽은 家僮에 대해서는 임금이 “그 절개를 칭찬할 만하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만 전할 뿐 그의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봉상에게 직접 그 때 家僮에 관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면서 가동의 절행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고하였다. 그리고 무주의 이만득의 집을 찾아가게 된 연유에 대한 질문에도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자신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부친의 죽음을 맞아 장사를 치르려고 湖中에 있던 중, 조모의 편지를 받고 도망가다가 무주 이만득의 집에 4년을 숨어 있었다고 하면서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²¹⁾ 하지만 이봉상 피화담에서는 피신을 도왔던 영태와 수현, 만득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수현은 설천궁 외가에서 온 노복이라. 정씨가 바야흐로 화를 두려워하여 붙잡으려 하였으나 노비는 남아있는 피붙이에게 충성을 다하였으

20) 『樸素村話』2-68화가 그 예인데, 이 작품은 李廣漢이 임인사화 때 죽고 난 후 부친이 伸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들 李麟錫이 겪은 사건의 심각함과 극적인 정황이 주변 인물들의 성격과 결합되어, 갈등이 잘 드러나 났다.

21) 上曰 其時家僮之事 見其上言 予已知之 第詳言其事狀 鳳祥曰 小臣 於其時 年甚幼稚 酷遭慘禍 精神昏迷 不省人事矣 小臣 以亡父藁葬事 往于湖中 纔過窆埋 聞有臣父孥啓 小臣以告訣事 往于墓下矣 往數日 臣之祖母 欲保臣身 逃匿偷生之意 以書傳通 故小臣輾轉奔竄 晦迹於茂朱李晚得家者 今已四年矣(『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5월 9일 기사).

니 또한 남다르다. 충문공 부인이 수현에게 좋은 전도와 술로써 그 공로를 후하게 상 주었다고 한다.²²⁾

충문공 부자의 소상과 대상 날이면 만득은 반드시 밤을 틈타 설천공을 이끌고 깊은 산에 들어가 통곡하고 돌아왔다. 수현을 만나서 매년 한 번씩 문안 편지를 본댁에 보내어 서로 존몰을 알게 하였다.²³⁾

위 글에는 서로의 존몰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는 상황에서 일 년에 한 번이나 이봉상의 편지를 수현에게 전달해주고, 조부와 부친의 소상과 대상 날에는 남의 눈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통곡을 하도록 주선해 주는 등 만득의 세심한 배려가 잘 나타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의 조력은 빛이 났다.

이 때 흉당은 그가 죽지 않았음을 의심하여 현상금을 걸고 심밀하게 찾으니 만득이 다시 도모하였다. 그는 군교가 되어 정찰을 주관하였으므로, 무릇 은밀히 관계함이 있어 자주 임시변통으로 꾸러나가기를 잘 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거짓으로 온 집안이 설사병을 만났다고 하고 설천공을 데리고 산촌을 나가 그를 피하게 하였다.²⁴⁾

영태 또한 수현이 이봉상을 몰래 숨겨서 피신시킬 때,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사는 태백산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봉상 집안에 신망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이명이 유배지에서 後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자 棺材를 싣고 가다가 표류하여 몇 년간이나 고생을 하였다는 것에 그의 충성스러운 면모가 잘 드러난다.

22) 守賢則雪川公外家所來之奴也 鄭氏方畏禍 欲捕而奴能竭忠存孤其亦異哉 忠文公夫人厚償守賢以好田土以酬其功勞云(『樸素村話』1-136).

23) 忠文公父子小大祥日 則晚得必乘夜携雪川公入深山痛哭而歸 逢守賢于日中 每歲一通鴈書于本第 使相知存沒而已(『樸素村話』1-135).

24) 時凶黨疑其不死 購捕深密 晚得復圖爲軍校管其貞察而凡有密關 輒善彌縫 勢既屢更匿之漸難 佯爲闔家患病 而將雪川公出山村而避之(같은 곳).

영태는 처음 충문공이 남해에 유배 갔을 때 配所에서 後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棺材를 싣고 갔다. 남해로 향하던 중 표류하여 울릉도에 정박하였다가 이 때(이봉상이 공릉침낭을 제수 받을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지나가던 배를 만나 돌아올 수 있었는데, 중간의 세상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²⁵⁾

만득과 수현이 만난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수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비중도 크게 부각시켰다. 이처럼 수현이나 영태 등과 같은 충성스런 겸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한 것은 이동윤이 평소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동윤은 명분과 절의를 실천한 이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충성과 의리를 실천한 충노나 겸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그가 특히 노비들에 대해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일찍이 내가 기록한 바를 보다가 충성스러운 노비로서 또한 이름이 난 자가 있음에 이르러 그의 노비 시재의 충성스러움을 말해주었다.(중략) 내가 그것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국서의 말이 믿을 만하기에 기록해 둔다.²⁶⁾
- ② 이는 나의 누이가 설천 이공에게 부탁한 것인데, 그는 “예향과 같은 충성스러움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힘쓰다가 죽은 이후에야 그만 둔 것이라 이를 만한테도 민몰되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공이 立傳하겠다고 허락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다.²⁷⁾

25) 榮泰聞其將受後命于配所 浮海而載棺材向南海漂迫鬱陵島 至時始逢過去船得歸 中間世事之滄幸有若響桴矣(『樸素村話』 1-135).

26) 嘗閱我所錄至有忠奴忠婢之亦入闡發者 爲言其奴時才之忠曰 余聞而奇之且國瑞之言可信也 故記之(『樸素村話』3-125).

27) 此我姊氏所以申言于雪川公曰 若禮香之忠可謂鞠躬 盡瘁死以後已者也 可其浪沒

①은 친구 홍복일이 방문하여 이동윤 집안의 노비 가팔에 대한 기록을 보고는 자신의 집 충노 시재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②의 예항은 한낱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유명 인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전의 대상이 되었다.

이봉상 피화담에서 충노 수현과 영대 등의 활약상을 비중 있게 그린 것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평소 충노나 부림을 받는 이들의 모범적인 삶은 본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세상에 잊힐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세의 일개 僮奴”가 “주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실로 만고에 걸쳐 높이 뛰어난 절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주인이 나라에 충을 실천한 것과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종은 똑같이 절개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동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득 역시 조씨의 고아가 될 이를 보전하게 하였는데 을사 이후 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탄식할 만하다고 하였다.²⁸⁾ 그들의 모범적인 행적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세상에 대해 교훈을 전하는 길임은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반동인물에 해당하는 반대당의 끈질긴 추적과 의심에 찬 행동들은 작품의 긴장감을 더하게 한다. 실록에도 이봉상이 죽은 것을 의심하였다고 기록하였듯이 당시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았던 듯하다. 이봉상이 도주할 당시,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관에서 재검시를 하였고, 조정에서는 목을 매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은 것과 시신을 검시한 인근 고을 수령이 親屬이라는 점을 들어, 사람들이 의심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수군대고 있다며,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²⁹⁾ 조정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이봉상을 잡아 들여 처

而無傳也 李公許其傳未成而卒(『樸素村話』 3-124).

28) 李晚得於忠文公家無愧 趙氏之程纓而乙巳諸公未克褒賞可慨也(『樸素村話』1-135).

29) 경종실록 2년 12월 21일 기사 참조.

별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왕은 윤택하지 않았다.³⁰⁾

이봉상 피화담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봉상의 외 조부를 잡아다 추달을 하고 집쟁이를 불러다가 숨어 있는 곳을 짐치게 하는 등 끈질김을 보인다. 정미년에 반대당이 임금에게 상달하여 이봉상을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까지 내리게 하였다. 죽을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봉상은 2차 피란의 위기를 맞게 되어 또다시 극적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봉상은 무주에서의 도피생활 중 만득이 구해다 준 <주자서절요>를 심독하고, 김신검을 따라서 삼연의 학문을 배우면서 학문이 성숙하였으므로 조용히 기다리는 의연함을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年甚幼稚 酷遭慘禍 精神昏迷 不省人事”³¹⁾의 16세 소년이 아니며, 피란의 기간 동안 단련이 되었던 때문일 것이다. 정미년 이후의 진도, 나주, 임천 등지의 유배 기간에도 오로지 經籍에만 몰두함으로써 힘겨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봉상 피화담은 이처럼 주요인물은 물론 보조인물과 반동인물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서사세계를 더욱 확대하였다.

3.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과 장면의 축조

史話에 속하는 것들은 대체로 사건의 전말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다. 하지만 土禍나 黨爭 관련 史話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특히 이봉상 피화담은 사연 자체가 세간의 흥밋거리여서 극적인 스토리나 기구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인물의 성품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모가 두드러진다. 즉 역사적인 전환기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처했던 실존 인물 이봉상의 삶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忠奴, 報恩, 詐術 등의 모티프와 결합하여 서술함으로써 서사성이 강조된 것이다.

30) 영조실록 3년 9월 12일 기사, 8년 5월 8일 기사 참조.

31)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5월 9일 기사.

이봉상은 그의 삶 자체가 흥미로운 것이어서 풀려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의 避亂은 세간의 큰 관심거리로서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이익명의 상소와 김씨 부인의 상언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세상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사실은 집안사람들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지기도 하였다. 김씨 부인의 첫 번째 상언은 김씨 부인의 시가와 인척 관계에 있던 도암 이재의 <삼관기> 한글 필사본에 함께 필사되어 전하고 있고, 이봉상의 처조카인 金履安이 쓴 이봉상의 제문에도 그 고난상이 실려 있다.³²⁾ 김씨 부인이 손자의 구명을 위해 작성한 두 차례의 상언은 모두 개인 소장되어 전하거나 집안 사람의 문헌에 전사되어 전하여 졌다고 한다.³³⁾

이렇게 볼 때 이봉상 피화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의 소문으로부터 이봉상 사후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전승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자세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봉상에게 임금이 피란 당시의 정황을 하문하였을 때조차도 자신은 너무 어렸고 湖中에 있었으며 모든 일을 조모가 계획하였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였으며, 피난 시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가동이나 만득에 대해서조차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윤은 누이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동윤은 누이의 비교적 상세한 제보와 집안에 내려오는 기록들, 소문 등 당대의 다양한 전승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어 대화와 묘사 등을 통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 ① 수현이 호남 좁은 길을 좇아 구불구불한 길로 무주를 지나가다가 읍중의 장교 이만득을 광야에서 만났다. 수현과 만득은 일찍이 안면이 있는지라 “장차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하고 물었다. 마침내

32) 金履安, “祭雪川李公鳳祥文”, 『三山齋集』 卷九, 서경희 앞의 논문 참조.

33) 임형택, 앞의 논문, 서경희, 앞의 논문 참조.

사실로써 말하니, 만득은 이미 충문공 父子가 가혹한 화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였던 차라,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태백에 미쳐 가지 못하여서 흔적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어찌 위험하지 않으리오? 내가 마땅히 숨겨 주겠소.” 하고는 마침내 어두운 때를 틈타 그들을 이끌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수현은 말을 끌어다 협촌 사십 리 되는 땅에 매어 두었다.³⁴⁾

② 마침 장맛비를 만났는데 밤에 큰물로 산이 무너지고 모래가 흘러 내려 도망가기 어려웠다. 설천공의 처소에 이르러서 집 뒤편이 좌우로 나뉘어서 흘러내려갔는데, 형세가 마치 높은 언덕이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언덕이 된 것 같았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큰 돌 하나가 집 위로부터 굴러서 창 앞에 와서 떨어져 있었는데 형상이 마치 큰 집과 같았다. 모래와 돌과 집이 평평하여져서 뒤쪽 들창으로 통할 수가 없었다. 좌우 촌락의 닭과 개가 또한 남은 것이 없었는데 설천공이 몸을 의지한 곳만은 탈이 없었다.³⁵⁾

③ 정각선의 아우 혁선은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내가 질녀를 보건대 만약 그 독자가 진실로 이미 죽었다면 반드시 일본의 살 뜻도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이는 의심할 만합니다.” 하고 곧 점 잘 보는 자로 하여금 그를 점치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호남 협중에 숨어서 그 아들 錫三으로써 남원재상이 되기를 도모합니다.” 라고 하였다. 대개 남원은 곧 전일 일암공이 유배 간 곳이라. 후는 (정분후) 남아 있는 유배지의 집을 왔다 간 자의 종적을 몰래 찾았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였다.³⁶⁾

34) 守賢從湖南峽路逶迤過茂朱 逢邑中將校李晚得於廣野 守賢與晚得曾所識面 問將何適 遂告以實 晚得已聞忠文公父子受酷禍而非之 大驚曰 不及太白跡必露矣 豈不危哉 吾當匿之 遂乘昏 携歸其家 守賢牽其馬投峽村四十里地居焉(『樸素村話』 1-135).

35) 會霖雨達夜大注山崩沙汰而難走 至雪川公所居 屋後分左右 而下勢若高岸爲谷深谷爲陵矣 平明起看則有一大石 自屋上轉而落于窓前 形若一大屋 沙石與屋平準 異後牖不可通矣 左右村落鷄犬亦無孑遺 獨雪川公庇身之所無恙(같은 곳).

36) 鄭之弟赫先大懼曰 吾見姪女若其獨子眞箇已死則必無一分生意 而能不若是可疑也 乃使善筮者卜之云 匿于湖南峽中以其子錫三圖爲南原宰 盖南原則前日一菴公所謫

①은 영태의 집이 있는 태백으로 피신하던 이봉상과 수현이 중간에서 만득을 만나 애통함을 나누고 방향을 바꾸어 무주봉 만득의 집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대화로써 처리한 것이고, ②는 구체적인 避亂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집요하게 계속되는 반대당의 탐색을 여러 차례 만득의 임시방편으로 모면하였지만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 은둔처를 빠져나와 몰래 도주를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장맛비로 사태가 나서 집 주위를 덮어버려 문조차 열 수가 없게 된 진퇴유곡의 상황이었다. 비가 그치고 보니 마을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오직 이봉상이 있던 곳만은 무사하였다고 하였다. 남의 눈을 피해 도주하는 인물의 심리가 절박한데 하늘의 시련마저 가중되어 더욱 심각해진 인물의 고난상을 묘사로 처리하였다. 반대당이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고 이봉상의 외가에게까지 압력을 가하여 은둔처를 알아내고자 하니, 외가에서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점쟁이까지 동원하여 찾고자 하였다고 한다. ③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대화로써 서술한 것이다.

이동윤이 이처럼 당사자들이 숨기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들까지 자세하게 알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과 학맥 및 교유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봉상과 직접 교류하였음은 물론³⁷⁾ 그 집안사람들과 자신의 누나인 鄭氏婦로부터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까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³⁸⁾ 정씨부는 이봉상으로부터 들었던 집안사를 동생에게 들려주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설천공이 내 누이 정씨부에게 외조모의 조카(從子)가 되기에 일찍이

之地也 遂厚遺謫舍往來者 潛索其蹤而終不得(『樸素村話』1-135).

37) 이동윤이 그의 망우의 명정을 작성할 때 시호를 사사로이 쓸 수 있는가를 질문한 편지가 『敏齋遺稿』 地, 「書」. <上玉谷李公鳳祥別紙> 이다.

38) 정씨부는 이동윤의 배다른 누이인데 그녀의 외조모인 이숙인은 참화를 당한 이이명과 김씨 부인의 둘째 딸로서 이봉상의 고모가 된다.

그 도망 가 숨었던 전말을 누이에게 말하였고, 나는 지금 그 곁에서 들은 것을 기록함이 이와 같다. 설천공은 관직이 지평에 이르렀고 마침내 병으로 누워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 遺集과 讀書記疑가 있으나 일찍이 간행되지 못하였다.³⁹⁾

이동윤은 당시의 사건의 전후사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 당사자가 이이명의 손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이동윤은 권상하의 제자인 한원진과 윤봉구 등 주로 노론 학자들에게 수학하였고, 특히 정씨부의 외가인 안동 김씨 자제들인 김양행, 김약행, 김헌행, 김우행 형제들과도 교류하였다.⁴⁰⁾ 그러므로 노론과 소론이 주축이 된 신임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정치적 과장을 경험하였던 인물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거나 사건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동윤은 정치적 입지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작품화하여 남김으로써, 당시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자기변명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들의 희생이 민몰되지 않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언젠가 민심을 통해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단일 사건 단일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기술하여 역사성을 강조한 실록의 내용과 달리, 이봉상 피화담은 상당 부분 의도적인 재구성이 두드러진다. 극적인 상황에 직면한 인물의 구체적인 대응 양상을 주변인물을 개입시켜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전후 사건을 인과관계로 구성하여 문학적 흥미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39) 雪川公於我姊鄭氏婦爲外祖母之從子也 嘗於其漣竄顛末于姊 余今記其旁聽如此 雪川公官持平而終不起 有遺集及讀書記疑 尙未刊行(『樸素村話』1-135).

40) 이동윤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이병직, 「이동윤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동인」, 『문창어문논집』 제39집, 200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V. 맺음말 : 문학사적 의의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봉상 피화담은 역사적 사건을 史話의 형식으로 다루면서 의도적 재구성과 저작자의 서술의도, 기록 양식에 대한 의식 등이 작용하여 시간적 배경의 확대, 인과적 구성, 다양한 보조 인물 창조, 구체적인 장면화 등을 통해 서사성과 흥미성을 획득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 결과, 士禍 속에서 고난을 겪은 인물의 삶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사건에 대한 당대의 문화적 배경까지 담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史話를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 차원의 이야기와 흥미 중심의 이야기 사이에 놓이는 것”⁴¹⁾이라고 할 때, 특히 집안일을 돌보던 李晩得과 창두 守賢의 충성스런 면모와 機智를 부각시키고, 옷을 바꾸어 입고 피신하면서 再檢屍까지 하는 官을 따돌리는 극적 설정 등은 이 작품이 흥미 중심의 이야기 쪽으로 더욱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로써 이 작품은 史話가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적 진실을 충실히 드러내는 데서 출발했지만 작가의 의도적 재구성을 통해 허구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진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그려내어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이동윤의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봉상 피화담은 또한 세상에 널리 알리지 못하고 가문 중심으로만 은밀히 공유되던 皮란의 내막을 이십여 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밝혀 기록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사료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신임사화는 당대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고, 영조의 꾸준한 탕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토역론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동윤은 정치적 소신을 지키고 명분을 실천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였던 자파 인물들의 고난상을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이를 작품화하였다. 특히 이이명의 죽음과 관

41) 신동훈, 앞의 책, 132면.

련한 집안의 희생과 고충의 정황 및 이봉상의 피란담은 그 자체가 극적이어서 노론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던 듯하다.

이동윤은 이를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소신을 지키다가 겪게 된 기구한 삶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죽은 인물들의 행적을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은폐되어 오던 사실을 여러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봉상 피화담에는 당시의 다양한 전승을 바탕으로 자세한 정황을 어느 자료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려내면서, 거기에 피란 중에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嗣孫을 지킬 수 있었던 다양한 인물들의 활약까지 보태어 송고미와 비장미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봉상 피화담은 史話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경험적 현실보다는 허구적 현실에 더 가까워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서술하면서도 서사성이 훨씬 풍부해지고 세부적인 내용도 다채로워져 흥미성이 더욱 커졌다. 결과적으로 기록의 의무는 물론 문학성까지 띠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인물들의 삶을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문학적 흥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로써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의 긴장 속에서 당대인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적극적인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秀作으로서 史話史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성은 물론 문학성이 두드러진 사회 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동윤, 『樸素村話』 1, 2, 3권
이동윤, 『敏齋遺稿』 天, 地, 人
『조선왕조실록』 CD 자료
『승정원일기』 CD 자료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1-75쪽.
- 서경희, '이봉상 사건'의 전승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회, 2006, 311-341쪽.
-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149-175쪽.
- 이강옥,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13-92쪽.
- 이규상, 『18세기 조선인물지 병세재인록』, 창작과 비평사, 1997, 23, 347쪽.
-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동인」, 『문창어문논집』 39집, 문창어문학회, 2002, 47-77쪽.
- 이병직, 『樸素村話』의 텍스트 구성 방식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2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09-138쪽.
- 이은순, 『조선후기당쟁사연구』, 일조각, 1996.
- 임치균,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 17호, 문헌과해석사, 2001, 가을, 139-147쪽.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58-384쪽.
- 정명기, 「야담연구에서 자료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학회, 2000, 27-55쪽.
- 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87-224쪽.

- 정준식, 「『樸素村話』의 저작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집, 어문연구학회, 2002, 238-259쪽.
- 정준식, 「『樸素村話』 소개 노비담 연구」, 『어문연구』 42집, 어문연구학회, 2003, 277-307쪽.
- 조선옥, 「『樸素村話』의 텍스트 생성 과정 연구」, 『문창어문논집』 39집, 문창어문학회, 2002, 79-108쪽.
- 조선옥, 「『樸素村話』 소개 당쟁이야기의 진술방식과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23집,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13-43쪽.
- 조선옥, 「『樸素村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8, 1-186쪽.
- 하미경, 「『樸素村話』에 나타난 李東允의 갈래 의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40집, 문창어문학회, 2003, 49-117쪽.
- 하미경, 「『樸素村話』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34집, 한국문학학회, 2003, 357-380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Abstract>

Literary Features of Lee Bong-sang Pihwadam

Cho, Seon-Ok

Differ from the other related articles, Lee Bong-sang Pihwadam recorded in 『Baksochonhwa』 deals with the historical events in a type of historical tale, and the story had been successfully become much more narrative and interesting story through reconstruction. After the intentional modification, this work is now not only revealing the character's detailed life; suffering from the calamity of literati, but also containing the contemporary people's thoughts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at historical calamity.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the story which once had been a record of historical fact to become nearly fictional story due to the modification.

Also, Lee Bong-sang Pihwadam is highly valuable historical material, since the secret which is the inside story of refuge once hidden within the family members was exposed to the public by this story over 20 years after. Especially, the family's sacrifice and troubles due to the death of Lee Yi-myeong, and Pirandam of Lee Bong-sang was dramatic itself so that some extent of discussion already had been made among Noron specialists. At that time, Lee Dong-yoon reorganized the facts which had been suppressed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various reports turned in.

In conclusion, Lee, Bongsang Pihwadam was written in the form of historical tale, however it got fictional reality rather than experiential fact. The story was originally developed based on the real event, but completed in much more interesting story due to the abundant addition of narrative expressions and details. Eventually, this story got possessed the literary features, and, at the same time, performed the duty of recording historical facts. Thus, we can remark that Lee Bong-sang Pihwadam is really a superb work because it had been undergone literary figuration that caused ambiguity between the fact and fiction. It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meaningful story in the history of historical tale.

Key Words : Lee Bong-sang Pihwadam, Literary Features,
Baksochonhwa, historical tale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